

천도교와 인격교육

노 태 구

(경기대학교)

〈 요약 〉

살기 좋은 새 세상을 건설하려면 사회 성원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회개조는 신인간 창조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인간개조는 정신개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개개인의 행복은 물론 교회중흥이나 민족통일, 보국안민, 지상천국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을 위해 천도교는 侍天主의 신앙과 수도연성으로 한울님을 모시고 깨닫고 한울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종교수련을 통해서 즉 守心正氣하고 誠敬信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I. 문제의 제기

어느 종교든지 이상적인 인간됨을 위해 각각 신앙적 특성이 있고 그 역사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그 종교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 나아가서 인격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찾는 길은 없을까. 우리는 이를 天道敎의 수도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이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중생들은 인생이란 으레히 그런 것인가 착각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생로병사, 희로애락, 흥망성쇠가 무상한 생활세계의 광야에서 헤매이는 것이 인생향로로 알고 망상과 착각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인류에게 광명의 길을 밝혀주는 無極大道가 창명된지도 130여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세상은 아직도 어둡기만 한 것이다. 世人들은 광명의 길을 외면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가식이 진실인양 행세하고 있으니 동터오는 여명을 두고 과도기의 암흑에 비유할 수 있을지 답답하고 민망할 뿐이다. 위선자(눈 하나 밖에 없는 자)가 보통사람(눈이 둘 있는 자)을 도리어 병신이라고 큰 소리쳤다는 우화가 생각나는 세태이다.

따라서 천도교는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 평소 신앙 잘 하고 수도 잘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의 진정한 행복, 永生을 찾는 길이고 布德을 많이 하여 민족과 인류를 광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인격교육에서 중요한 것임을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겸전할 것을 아울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현실을 바르게 통찰해야 하고 자기 입장을 바로 세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 성실한 노력을 다해가야 한다.

오늘날 인간성 회복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대인은 사치스런 물질문명에 현혹되어 소중한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 속이고 빼앗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며 인격교육을 주창하는 연구모임이 주선되고 있다. 이 부르짖음은 날로 높아지리라 믿는다. 그러나 인격교육은 말과 글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신앙과 철학사상이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려면 사람마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侍天主 — 人乃天 — 事人如天의 이념을 온누리에 전파하지 않고서는 인간성 회복은 한낱 구두선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 수도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천도교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통감하게 된다.

이제 천도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됬됨이, 이러한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 내용과 방법 그리고 민족종교로서의 오늘날의 천도교의 위상, 천도교 교육사상의 현대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방안)이나 제언등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II. 천도교의 교육사상

천도교는 布德 元年(檀紀 4193, 西紀 1860) 4월 5일 우리 나라 경주에서 水雲大神師 崔濟愚에 의해 창명된 새 종교이다.

처음에는 東學이라 하다가 포덕 46년(1905) 12월 1일 義庵聖師 孫秉熙에 의해 天道敎로 선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

천도교의 敎育思想은 韓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先史시대부터 天神숭배신앙과 함께 홍익인간의 이념을 지녀왔고 儒·佛·仙 3敎를 포용한 風流道라는 고유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 후 신라, 고려의 불교전성기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러 유교의 전승문화를 향유해왔다. 조선조 말기에 유교가 쇠퇴하여 정감록 등의 참서를 믿고 十勝之地를 찾아다니는 한편, 西學이 물질문명과 함께 들어오게 되어 이제 조선의 사회상은 기성종교로는 더 이상 민심을 안정시킬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새 종교가 나와야 할 필연성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水雲은 濟世安民의 大道를 구하기 위해 모든 종교사상을 연구섭렵하고 주유천하하면서 人心風俗을 살피 苦行을 거듭한 끝에 更申年(1860)에 한울님으로부터 萬古에 없는 無極大道를 받아 東學을 창건하게 된 것이다.

侍天主의 새로운 신앙과, 사람이 곧 한울이요 사람을 한울같이 섬겨야 된다는 人乃天 — 事人如天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포덕을 하게 된 것이다. 三政의 문란과 외세의 침입으로 內憂外患의 와중에 살 길을 찾아 중생들이 풍운과 같이 모여들어 불과 2-3년 만에 수천명이 입교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동학을 斯文亂賊으로 몰아 포교 4년 만에 수운은 순교하게 된다.

그 후 동학은 2세 敎祖 海月 崔時亨에 의해 지하포교활동이 시작되게 된다. 해월은 동학재건의 무거운 짐을 지고 36여 년간을 산간벽지를 쫓겨다니면서도 日用행사에 道를 몸소 실천하면서 포교를 계속하면 한편 수차례 경전을 木板으로 간행하여 東學의 터전을 다지게 하였다.

해월신사 말기에는 수십만의 교도를 확보하게 되었고 포덕 33년에는全州 삼례역에서 수천명의 교도가 모여 大神師의 억울한 죽음의 신원과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

1) 天道敎百年略史(上卷), 서울: 天道敎中央總部, 布德 122年(1881) 참고.

고 다음해 2월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수천명이 복합상소를 하고 이어 3월에는 충청도 보은에 2만여명이 모여 20여일간이나 斥洋斥倭 輔國安民의 기치를 들고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 조정은 동학도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박해를 가하자 포덕 35년(1894)에는 드디어 甲午東學革命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라도 고부에서 起義한 동학혁명운동은 육일승천의 기세로 삼남일대를 석권하고 전주성을 점령 53개 군현에 執綱所를 설치하여 민정을 단행함으로써 실로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全州和約을 맺고 해산한 동학군은 일본군의 침입으로 다시 9월 起包를 하여 일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무려 30만의 희생을 내게 되었다.

포덕 45년에 甲辰改革운동이 일어났으나 실패하자 포덕 46년 12월 1일에 東學에서 天道敎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이듬해 천도교중앙총부를 서울에 설치하여 근대적인 종교의 틀을 확립하게 된다. 그 후 3歲 敎祖 의암성사는 春菴上師 朴寅浩에게 四世大道主의 직을 승계하고 한일합방이후 10여년 동안 교세확장과 교육사업을 통하여 구국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후 천도교는 포덕 60년(1919) 기미 3·1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등 3개 종단의 연합으로 일어난 운동이었으나 천도교가 기금을 전담하고 독립선언서 인쇄등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천도교는 1920년대에 농민운동, 어린이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등 7부문운동을 통하여 신문화운동을 일으켜 민족계몽에 앞장섰고, 또 吾心黨事件과 춘암상사지도로 일어난 戊寅滅倭企圖등 항일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8·15해방후 다시 국토가 분단되자 북에는 북조선 중무원이 따로 설치되었고 靑友黨을 발족시켜 무려 280여만 교도를 확보하여 민족분열저지운동인 3·1再顯運動, 靈友會運動(분단저지운동) 등 민족통일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제 천도교는 동학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천도교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개괄해 보았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민족자주정신의 정립, 민족의 통일, 인간성회복, 도덕질서확립, 전체주의와 개인주의 사상대립의 극복, 환경보전, 전쟁과 질병, 가난 등 대내외적으로 인류의 존망과 직결된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모든 당면과제들을 여기서는 천도교의 人乃天진리의 사상에 기초한 인격교육

을 통해 해결해갈 수가 있다고 보고 천도교신앙과 이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도와 포덕, 교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인격교육의 過程

1. 종교활동의 방법

종교생활의 방법은 믿음과 수련(수도) 그리고 실천의 세가지로 구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본질과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기독교가 믿음을, 불교는 수련을 유교는 실천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런데 믿음만 있고 수도와 실천이 없으면 맹신으로 배타적 교조주의에 빠지기 쉽고, 수련만 하고 믿음과 실천이 없으면 현실도피, 무사안일에 빠지기 쉽고, 실천만 강조하고 수련과 믿음이 없으면 뿌리없는 나무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아서 徒勞와 구두선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천도교는 이 誠(실천)·敬(수도)·信(믿음)을 모두 갖추도록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을 투철히 하고, 수도를 열심히 하고 따라서 진리를 실천궁행하도록 인격교육에 힘쓰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는 믿음이다. 수운은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었어라. 네 몸에 모셨으니 捨近取遠 하단말가”²⁾라고 하여 先信後誠을 말하였다. 해월은 “마음 밖에 한울 없고 한울 밖에 마음없다”³⁾ 하였다. 의암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정성을 다 하고 공경하고 믿고 기준이 되도록 하라”(自心自誠 自心自敬 自心自心 自心自法)⁴⁾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호의 어김도 없으면 위도 아래도 없고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이 스스로 天皇氏가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믿음(信心)이 확고해지면 자신과 내 가정이 행복을 찾게 되고 민족과 인류를 구하는 불타는 사명감이 생기고 한울님의 능력을 얻어 다른 사람들보다 몇배 이상의 (초)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둘째는 수련이다. 우리는 한울님을 믿음과 동시에 마음을 닦아야 한다. 욕심과 감

2) “교훈가”, 天道教經典,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포덕 133년(1992), p.142.

3) “天地人·鬼神·陰陽” 前揭書, p.268.

4) “無體法經”, 前揭書, p.449.

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정신적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수운은 “밝음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不知明之所在 遠不求而修我)⁵⁾라고 하였다. 해월은 “심령으로써 심령을 밝히면 현묘한 이치와 무궁한 조화를 가히 얻어 쓸 수 있다”⁶⁾고 하였다. 의암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제 성품의 본 바탕의 크게 활동하는 비밀의 기틀을 받는 것이니, 능력이 가히 천지를 운반하고 권능이 가히 만상의 위자리가 되는 것이니라”⁷⁾고 하였다. 춘암은 “제일 다하고 제잠 다자고 도는 언제 닦겠는가”라고 하였다. 따라서 항상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 허물을 참회하고 심고와 기도를 하면서 경전과 교사공부를 계속해가야 하는 것이다.⁸⁾

셋째로 실천이다. 종교는 실천에서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천도교의 실천적 신앙은 우선 五款의 실행에서 비롯된다.⁹⁾

항상 주문을 외워서 天人合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매일 저녁 9시 기도식을 가족과 함께 清水를 봉행하고 家和를 도모할 것이며, 侍日마다 온가족이 시일식에 참여하여 同歸一體를 체득하고 인류가 한가족이 되는 공동생활을 익힐 것이며, 誠米를 가족수대로 정량으로 상납하여 天德師恩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며, 시일 기도 특별기도등을 봉행하여 한울님의 감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계명을 지키고 事人如天, 夫和婦順을 실행하고 스승의 가르침인 모든 도덕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포덕을 많이 해야 한다. 포덕은 한울님과 스승님의 간절한 뜻이요 지상명령이다. 포덕은 한사람씩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고 기도와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천도교는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신앙통일과 규모일치(행동통일)를 하여야 한다.

의암은 “습관의 天을 믿지 말고 오직 자아 본래의 한울님을 믿는 것으로써 신앙을 통일하고, 또한 경전의 문구만을 따져서 연구하지 말고 오직 대도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신앙을 통일하라”¹⁰⁾고 하였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에 봉사하는 실천(포덕)도 중요하지만 특히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실천도 중요한 종교활동

5) “前入節”, 天道教經典, 前揭書, p.98.

6) “守心正氣” 前揭書, p.297.

7) “無體法經” 前揭書, pp.455-456.

8) 次第道法 猶爲二十一字而已

9) 林雲吉, 修道와 人生, 서울: 천도교중앙출판부, 포덕 133년(1992), pp.303-306.

10) “信仰統一과 規模一致”, 天道教經典, 上揭書, p.707.

동이 되는 것이다.

2. 修道의 기능

수도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나의 인격교육과 가정의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는 길이 수도에 있고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수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인격을 도야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나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선 건전한 수도생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¹¹⁾

수도의 필요성을 개인과 가정, 사회와 자연등 여러 측면에서 소개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천도교의 인격교육의 주제에 맞추어 개인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은 수도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東經大典에 “有性有心에 大道必生”이라는 표현이 있다. 성품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大道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말이다. 사람이 신앙과 수련이 없으면 변화무쌍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마치 어두운 밤중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되기 쉽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육신이 식·의·주를 갖추어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마음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수도라고 생각한다. 만일 수도가 없으면 마음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험벗은 사람처럼 되어 항상 불안속에서 허덕이며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쉽다.

수도는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부여하고 광명을 찾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수도생활(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한울님과 통하는 길을 찾게 되고 나자신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며 국가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보람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3. 修道의 요령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듯이 수도에도 요령이 있다.

11) 拙稿, “천도교의 평화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5, pp.217-229.

우선 다음 몇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가 입교식이다. 일생동안 변함없이 계속 정진할 것을 한울님과 스승님께 맹서하는 중요한 의식이니만큼 수교인은 沐浴齊戒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식에 임해야 한다.¹²⁾ 스승님의 심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제멋대로 자의적인 행동을 하여 도리어 폐단과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가정은 결혼식으로 이루어지고 학생이 입학식으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격수양을 통해 자아를 완성하고 세상을 구도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입교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절차와 요령을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한다. 등산하는 사람이 안내서나 선행자의 안내를 받듯이 준비가 충분하여야 실패하지 않는다.

셋째는 가족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있으면 더욱 좋다. 家和가 잘 안되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수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넷째로 학문을 하는데 교수가 있듯이 교역자의 자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교역자는 언제나 진선 진미 曉諭하는 마음으로 초보자에게 수도의 절차·요령을 자세히 가르쳐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내에는 스승님의 존영과 守心正氣, 誠·敬·信 등 좋은 표어를 부착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수운은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잠깐이라도 모양함을 늦추지 말라”, “내 마음의 거슬리고 어두움을 두려워 하라”(不知敬之所爲, 暫不弛於慕仰… 恐吾心之吾昧)¹³⁾고 하였다.

4. 修道의 조건

수운은 “밝음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고 하고 “道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나 자신을 아는 인격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근원을 밝히는 근본이 되고 있다.

수도의 조건으로 우선 나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셋째로 나는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엄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넷째로 나

12) 林雲吉, 上揭書, pp.52-55.

13) “後入節”, 天道教經典, 上揭書, p.102.

는 性心身을 갖춘 존재이다. 사람의 육신(身), 마음(心), 성품(性)의 어느 하나에 치우침이 없이 세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 세상사람들이 육신의 세계만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마음과 성품의 세계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죄악의 씨앗이요 불행의 원인이다. 實像을 모르고 虛像만을 추구함으로써 참된 자아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간은 使命的 存在이다. 한울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 태어났다는 것이다. 한울님의 뜻에 맞는 理想世界건설을 위해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위에서 인격교육의 조건이랄까, 목적달성의 길(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한가지 뚜렷한 목적을 세워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경전에 “一念在茲라야 萬事如意하리라”라는 구절이 있다. 번복지심을 두지 말고 계속 한가지 목표를 향해 마음을 쏟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⁴⁾

둘째, 한울님의 감응을 받아야 한다. 한울님의 감응을 받으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수운은 “대저 인간 초목군생 사생재천 아닐런가”라고 하였다. 내게 모신 한울님을 진심으로 믿고 지극한 정성과 공경으로 받들고 呪文, 淸水, 時日, 誠米(月誠), 기도(기도미 또는 年誠) 등의 五款을 실행함으로써¹⁵⁾ 감응을 받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마음 밖의 神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마음의 정성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확고한 믿음이 서야 한다. 경전에 先信後誠하라는 표현이 있다. 먼저 믿고 정성을 다하라는 말로 암환자에게 담당의사가 거짓말을 하여 완쾌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듯이 마음으로 믿으면 부모와 같이 한울을 믿음으로써 큰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자기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 경전에 “非德心至와 惟在正心이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한갓 마음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자는 데 있다“고 한 것이다. 누가 나를 공연히 원망하고 비방한다면 다투거나 미워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의 자세부터 고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연히 수그러지고 친해질 수 있는 것이다. 마당을 깨끗이 하면 누가 감히 오물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4) 林雲吉, 上揭書, pp.51-55., pp.214-216.

15) 졸고, “천도교의 평화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상계서, pp.226-230.

이렇게 진정 마음의 실상을 알고 바르게 하려면 항상 마음을 잘 닦아서 한울님의 존재를 깨닫는 동시에 육신관념을 다 버리고 性靈을 주체로 한 신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한울님을 모신 줄을 모르고 육신에 사로잡힌 마음은 결코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육신은 일시적 객체요, 성령이 영원한 주체임을 자각하는 以身換性의 수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모든 물건이 한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물욕을 버릴 수 있고 모든 집착과 욕심, 감정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근본인 무형의 성령을 생각할 때 아집과 욕정을 떨쳐버리고 청정무구한 본래의 마음을 찾아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울님모심을 깨닫고 以身換性으로 새사람이 되어 마음을 바르게 하기만 하면 안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고 육신이 건강하고 만사가 뜻과 같이 된다면 가히 神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無爲以化될 것이니 地上神仙 네 아니냐”라고 수운대신사는 갈파하였다.

그런데 중생들은 마음 고칠 인격교육은 아니 하고 소원만 이루려고 급급해하니 이는 마치 뿌리가 병든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맺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각자 자기목적,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萬事如意가 되어 개인적으로 아무 소원도 없는 無求無望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때 교단적으로 한울님의 무궁한 법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 민족의 소원인 평화적 남북통일도 이룰 수 있고 또한 인류의 소원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5. 修道의 결과

수련의 결과는 점차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원만무결한 인격을 갖추게 되고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이 생기고 한울님의 무한능력, 무한지혜를 받아 신통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一念在茲에 萬事如意로 모든 일이 생각하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능력의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強靱한 체력과 卓拔한 정신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도의 창조적 능력이 길러진다. 未來叡智力이 생긴다. 인과의 법칙을 알아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만 수도를 하여도 自悟力에 의해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정도는 알 수 있고 사고날 버스나 비행기를 미리 알고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기혁신과 他人에 대한 감화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자기의 좋지 못한 성

격을 고쳐서 새사람이 되고 타인을 감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도를 통한 인격교육은 곧 타인에게 감화를 주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게 되고 물질까지도 공유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도의 결과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願望達成能力을 생기게 한다.¹⁶⁾

IV. 인격교육의 目標

1. 道成德立과 道家完成

인격교육의 목표는 도덕사회의 건설에 있다고 하겠다. 도덕이 실추되면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진다. 도성덕립과 도가완성을 위해 사회나 국가적으로 도덕성회복과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여기에 연유한다. 천도교경전에 도성덕립의 필요성을 두고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인화하는 방책은 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도로서 백성을 화하면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진다”(人和之策 非道不能 以道和民則 無爲而可治也).

그러면 천도교의 도덕관은 무엇인가. 천도교를 誠·敬·信(정성, 공경, 믿음)을 기초로 한 새 도덕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誠은 정성 즉 성실성, 적극성, 근면, 끈기있는 인간의 기본적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를 말하며, 敬은 공경, 즉 敬天, 敬人, 敬物 등 三敬思想을 바탕으로 한 敬畏精神을 말하며, 信은 믿음, 즉 侍天主를 바탕으로 한 신앙과 신념, 그리고 신의의 인간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도덕질서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道家完成의 근간이 되는 성·경·신의 자세확립 내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道成德立과 道家完成을 위해 천도교의 神觀, 宇宙觀, 人間觀 그리고 來世觀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¹⁷⁾

천도교는 믿음의 대상인 신을 ‘한울님’이라고 한다. 한울님은 한국 전래의 전통관념으로 내려온 신에 대한 고유의 이름이며 한국인은 아득한 옛날부터 한울님을 믿

16) 林雲吉, 上揭書, pp.237-238.

17) 前揭書, pp.349-351.

어온 것이다. 인간이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내 몸을 한울님을 모신 것을 알게 되고 유한한 사람이 무궁한 한울님과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거룩한 한울님을 가까운 내 몸에 모시는 것을 侍天主라고 하고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人乃天을 宗旨로 하여 일용행사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천도교는 우주관에서 우주의 본체를 ‘至氣’라고 한다. 우주의 근본 실재는 단순한 理도 아니요, 氣도 아닌 것으로 唯物로도 唯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能物, 能心, 能動, 能靜의 반대일치, 모순일치의 실재인 至氣라고 보는 것이다. 이리하여 至氣論은 性理學의 主理說과 主氣論의 논쟁을 종합 통일할 수 있고 오늘 날의 唯心論이나 唯物論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천도교는 지나간 세상을 先天이라고 하고 앞으로 올 미래의 세상을 後天이라고 하여 바야흐로 先·後天이 나누어지는 문화혁신의 개혁시대가 전개된다고 본다.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 등 3대개벽의 실천운동이 전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천도교는 同歸一體를 말하는데 이는 인간과 한울이 하나됨을 깨닫고 참된 하나의 진리로 돌아가 모든 인간이 하나고 귀일함을 뜻한다. 이리하여 동귀일체의 天人合一, 個全一體의 원리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극복한 통일의 이념을 형성할 수도 있다. 오늘날 세계는 개성의 자유에 편승하는 개인주의와 전체의 평등에 편중하는 전체주의간에 대립, 모순, 갈등이 혼재하고 있다. 천도교는 이러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간의 모순·대립을 지양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평등을 아울러 실현하는 동귀일체의 원리를 내세운다.

천도교의 인간관에서는 사람을 한울님같이 섬길 것을 내세우고 성·경·신의 세 가지 덕목을 새로운 인격교육의 기본 목표로 삼는다.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평등하게 한울님과 같이 섬기고 인격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이 윤리는 참된 인간성회복을 의미한다.

천도교의 내세관으로는 천도교에서는 먼저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환원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 말의 ‘돌아갔다’는 말과 같다. 그것은 인간의 성령이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천도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할 뿐이고 그의 精靈은 계속 살아서 한울님 품에 안겨 장생한다고 믿는다. 사람의 성령은 몇만대를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요, 나의 성령은 억만대를 이어 미래에 무궁히 계승된다고 믿는 것이다. 사람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것으로는 만

죽할 수 없으며 도덕을 쌓아서 德業으로 長生하고 도를 닦아 靈的 長生을 추구하는 데서 참된 보람을 찾게 된다.

2. 輔國安民과 統一

천도교는 지금부터 135년전(1860년) 4월 5일에 창도된 민족종교이다. 수운은 東에서 나서 東에서 맞았으니 道는 天道이나 學인 즉 東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학이라 불려오다가 포덕 46년(1905년) 12월 1일 의암에 의해 근대적 종교체제를 갖추면서 천도교로 천하에 선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⁸⁾

천도교는 우리 민족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면면히 흘러오는 선사시대부터의 天神숭배신앙과 弘益人間 이념을 민족고유의 정신으로 하여 여러 외래종교사상까지도 포용해서 창명된 보국안민의 민족종교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천도교는 우리 민족의 뿌리요 열매이고 또 우리 민족의 피와 살이요 뼈이며 민족혼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천도교는 창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만의 생명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한민족과 문명을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민족성이 강한 종교이다. 그러나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니라 가장 세계주의적인 열린 민족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는 지금 남북분단이라는 비운을 안고 40여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지상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살 수가 없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남북이 모두 핵무기등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서로 대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지 않으면 국제무대에서 물심양면으로 불필요한 일에 국력을 낭비하게 된다.

오늘 지구상에는 분단된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오늘 전 국민은 전직 대통령이 부정축재로 구속되는 불행한 대통령을 대하여 왔다는 부끄러움으로 자괴감에 빠졌듯이 이러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직도 민족의 분열된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8) 졸저, 세계화를 위한 한국민족주의론: 동학사상과 관련하여, 서울: 백산서당 1995, p.260.

통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통일은 독일통일이 그러하였듯이 작고 기초적인 일부터, 착실히 쌓아가야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해가야 하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는 것이 민족자주정신의 확립이다. 보국안민의 자주정신의 확립없이는 통일이 될 수도 없고 설사 물리적인 힘이나 형식적인 협상으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혼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 보국안민을 위한 민족주체성, 민족정기, 민족자주정신의 주장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국안민은 일조일석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민족고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앙과 철학·사상이 모든 거래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종교가 바로 東學(天道敎)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국토분단 뿐만 아니라 민족정신이 사분오열되어 이질화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동질성회복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동질성회복은 민족고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우리 한민족과 문명을 같이 해온 천도교가 민족정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민족통일의 구심점은 인류평화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布德天下와 廣濟蒼生

천도교는 새 종교 새 진리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운은 “儒道 佛道 累千年에 運이 역시 다했던가”라고 하여 새로운 종교가 나와야 할 필연성을 통감하고 오랫동안 非道苦行을 거듭한 끝에 後天開闢의 새종교인 東學을 창건하게 되었다.

천도교는 역사가 새롭고 진리가 새로운 것이다. 우선 몇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¹⁹⁾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고 또 한울님을 부모와 같이 섬기는” 侍天主의 새로운 신앙관,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人乃天의 새로운 인간관,

“사람을 한울같이 섬기자”는 事人如天의 새로운 윤리관,

19) 林雲吉, 上揭書, pp.297-300.

우주의 근본실재를 至氣로 보는 至氣論의 새로운 우주관,
 同歸一體의 새로운 사회관,
 운명개척의 새로운 운명관,
 生死一如 長生不死의 새로운 내세관,
 誠·敬·信, 守心正氣, 以身換性으로 天人合一에 이르는 새로운 修行觀 등
 “今不聞 古不聞, 今不比 古不比”의 새로운 道法을 밝혀주고 있다.

사람은 매일 새로와져야 한다고 한다. 새 시대, 새 역사는 어제의 검은 그림자를
 거두고 새 종교 새로운 신앙으로 布德天下하여 廣濟蒼生の 밝고 맑은 사회를 열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수운은 포덕천하를 위하여 포덕의 내용으로 儒·佛·仙 합일이라는 표현을 하였
 다. 여기서 유불선 합일은 모든 종교의 합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된다. 유교의 윤리,
 불교의 見性覺心, 仙敎의 養氣養生, 기독교의 박애 등 모든 종교사상의 근본을 파악
 하여 一以貫之한 종교사상이 東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萬古에 없는 無極大道라
 하였다. 따라서 천도교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포용하는 원
 만성, 포용성, 통일성을 보여준다. 넘기 어려운 종교의 장벽을 극복하여 종교연합으
 로 기미 3·1독립운동을 주도한 것도 천도교의 포덕천하의 정신의 바탕위에서 가능
 하였던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다종교사회이다. 이러한 후기산업사회에 광제창생을 할려면 타종
 교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우리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모든 종교사상의 통합을 바라는 큰 염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지금 한국을 방문중인 중국의 국가주석인 江澤民도 언급한 바 있는 2000
 년전의 중국에도 알려진 계림유사의 저자 崔孤雲에서도 그러한 민족의 꿈을 발견할
 수 있다.

유·불·선 3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 민족 고유신앙인 風流道에는
 이 3교의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포덕천하의 꿈,
 그 염원이 면면히 통일신라기의 元曉의 和靜思想, 조선조의 栗谷의 理通氣局說등으
 로 계승되어 오다가 드디어 東學思想에서 모든 종교사상을 종합 통일하여 東學(天
 道教)의 창도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천도교는 신앙을 통한 인격교육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아완성, 사회적으로 輔
 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 地上天國 建設에 두고 있다.

各自爲心으로 광제창생하여 병든 중생들로 하여금 한울사람이 되게 하여 地上神仙을 만들고, 병든 이 세상을 한울님의 뜻에 맞는 한울나라를 만들어 포덕천하의 理想世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도교는 來世보다 現世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내세와 현세는 근본에서 하나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도교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려는 현대인에게 적합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옛날부터 神仙에 대한 일화가 많다. 仙女(신선)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나무꾼 총각이 선녀의 옷을 한벌 감추었다가 나중에 같이 살게 되었다는 데서 그리고 심청전을 보더라도 효녀 심청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지상신선에 대한 간절한 비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弘益人間의 이념으로 지상신선을 추구해왔는데 이것은 바로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꿈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생이 지상신선이 될 수 있는 민족의 간절한 꿈이 면면히 내려오다가 근대여명에 즈음하여 수운에 이르러 동학이 창도됨으로써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운은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無爲以和될 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냐”라고 하여 드디어 동학을 포덕하여 광제창생으로 지상신선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선이란 生老病死에서 초월하고 가난과 질병과 싸움이 없는 행복의 절정이며, 원만무결한 인격완성의 단계에 이른 창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천도교를 통해서 비로소 지상천국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地上天國 建設

천도교는 내세보다는 현세를 위주로 하고 死後의 천당이나 극락이 아니라 한울사람으로 자아를 완성하고 지상신선 지상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실을 바르게 보고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여 적극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천도교는 동학의 출현이전을 先天이라 하고 앞으로 올 미래를 後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後天開闢을 통해서 새 세상, 즉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1세 敎祖 水雲大神師는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고 하여 “우

리 道는 후천개벽의 오만년 무극대도”라고 하였다.

제2세 敎祖 海月神師는 “이 세상은 개벽의 운수로 先天과 後天의 運이 서로 갈아들 때 세상이 크게 혼란하리라”고 하였다.

또 제3세 敎祖 義庵聖師는 “후천개벽의 시기에 처한 우리는 각자 정신개벽부터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 천지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써 하고 인생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써 한다”고 하였다. 또 大氣 번복과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以身換性의 정신개벽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천개벽이 원시적 우주개벽을 말하는 것이라면 천도교의 후천개벽은 인문개벽을 통한 문화의 창조를 의미한다.

천도교는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을 통해서 地上天國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²⁰⁾

정신개벽은 각개인의 정신을 개혁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개벽은 수련을 통한 以身換性으로 육신에 대한 관념을 성령으로 바꿈으로써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육신은 일시적 객체요, 성령이 영원한 주체임을 깨달아 성령을 주체로 하는 생각으로 天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정신개벽은 정신혁명이요, 새마음 갖기 운동이요, 신인간 창조운동이라 할 수 있다.

민족개벽은 世界一家를 위한 중간단계로 민족단위로 질서를 개편하고 정치, 경제, 윤리, 도덕의 모든 면에서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여 민족적 평등을 도모하고 민족성을 개조하여 건전한 민족이 되게 함을 말한다. 분열적 파쟁병, 사대적 의타병, 원기 부족병등 病根을 근원적으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각 민족은 건강한 민족단위로 발전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세계일가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사회개벽은 자유, 평등, 평화의 도의사회건설 즉 전쟁, 질병, 가난이 없는 세상, 경제적 정신적 富를 누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개벽은 신인간창조와 불합리한 사회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천도교의 개벽사상은 종말론이 아니라 신·구 교체의 부활생성을 통한 새로운 이상세계의 건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천국 건설을 추구하려면 同歸一體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운은

20) 拙著, 上揭書, pp.270-275.

“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하는 줄을 사십평생 알았던가”라고 하여 인류가 한가 죽임을 밝혀 주었다. 수운은 세상이 혼탁해진 근본원인을 중생들이 各自爲心하여 不順天理하고 不顧天命하는데 있다고 통찰하고 각자위심의 중생들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귀일체하는 새로운 道法으로 무극대도를 실천하여 지상천국 건설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

각자위심은 중생들이 天心을 잃어버리고 타성으로 살면서 불안과 공포가 습관이 되어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부정과, 불의, 파쟁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건전한 마음가짐을 말한다.

동귀일체는 각자위심으로 살아가던 중생들이 독실한 신앙을 통해 천심을 회복하고 인간의 근본이 하나의 이치이며 기운이며 생명체임을 깨달아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정치는 지역할거 구도로까지 되어 분열되어 人和단결이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인화는 주장이나 강제한다고 하여 실천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화합은 중생들이 동귀일체의 원리를 일깨워주는 신앙과 철학·사상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천도교에는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다.

천도교의 궁극적 목표는 지상천국 건설에 있다. 천도교의 인격교육의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道成德立과 道家完成으로 자아완성에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 地上天國건설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보면 자아완성은 수도생활을 통해서 人乃天진리를 깨닫고 誠·敬·信을 체행하고 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르러서 바르고 밝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道成德立 또는 地上神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운은 “입도한 세상사람 그 날부터 군자되어 無爲以化될 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니냐”라고 하여 인간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도를 닦으면 한울님과 통해서 한울사람이 될 수 있고 지상신선의 대자유, 대평등, 대평화, 대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보국안민은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히 잘 살게 한다는 뜻이다. 국가는 민주주의와 완전자주독립이 보장되고 국민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투쟁과 질병, 가난이 없고 부정과 불의, 부패가 없는 풍요롭고 문명된 도덕사회를 이루어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 문화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포덕천하는 한울님의 덕을 세상에 널리 퍼자는 것이다. 한울님의 진리와 거룩한 도덕을 중생이 다 잘 알고 지켜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광명정대한 천도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보급하자는 것이다.

광제창생은 세속과 물질에 집착하여 진리와 정의의 길을 잃고 미로에서 방황하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참된 천도의 길로 인도하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향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으로 이 땅위에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상천국은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천국을 내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天國이 되려면 최소한 전쟁이 없어야 하고 질병이 없어야 하고 가난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천도교는 인격교육을 통해 사람마다 지상신선이 되게 하고, 나라마다 보국안민이 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이 지구촌에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천도교를 통해 지상천국 건설의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천도교는 우리 민족과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면서 이 민족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V. 결론: 人乃天의 새 진리로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면 사회성원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인간은 정신개혁의 인격교육으로부터 성취되어야 한다.²¹⁾

의암은 “정신을 개혁코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체 하는 마음을 모실 侍자로 개혁하고, 스스로 높은 체 하는 마음을 개혁코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定자로 개혁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혁코자 하면 아득하고 망녕된 마음을 알 知자로 개혁하고,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개혁코자 하면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혁하라”고 하였다. 육신은 일시적 객체요 성령이 영원한 주체임을 자각

21) 拙著, 前掲書, pp.279-303.

하여 바르고 밝고 착하고 의로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말이다.

이러한 신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는 말과 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侍天主의 신앙과 수도연성으로 한울님모심을 깨닫고 한울님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종교수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스승님들께서는 守心正氣하고 誠·敬·信으로 篤工修練을 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길을 법설과 몸으로 가르쳐 준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보물이 우리의 마음으로 인격·정신교육의 중요함을 지적하는 말이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털끝만한 것 하나 가지고 온 것 없다. 다만 보배로운 것을 한조각 간직하고 태어났다”(人生厥初 實無一毫持來 兄將寶鏡一片)²²⁾ 보배로운 거울은 사람의 마음으로 마음교육, 인격교육에 따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천도교의 人乃天의 진리야말로 나와 내 가정의 참다운 행복과 민족과 인류구원의 대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운 대신사는 사람마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侍天主의 새로운 이념을 창도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의 신령한 기운으로 태어났고 한울님을 모신 靈氣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형한 한울님이 유형화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울님과 사람은 그 존귀함이 같기 때문에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말을 하게 되며, 마음을 잘 닦아서 한울님 모심을 자각하면 사람의 마음이 한울님 마음과 합일될 수 있기 때문에 人乃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한울과 사람이 하나임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많은 중생들은 이 새로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성 상실로 방황하고 있다. 인간의 성격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듯이 민족성 여하에 따라서는 민족의 장래가 결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발전 못지 않게 신인간 창조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신인간 인격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고하는 신앙과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천도교의 侍天主신앙과 事人如天의 실천윤리는 신인간 인격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이 한울님모심을 깨달을 때 참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22) “無體法經”, 天道教經典, 上揭書, p.479.

끝으로 천도교는 민족종교인 것을 두고 민족 평화통일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민족의 평화통일은 한민족의 숭고한 역사적 사명이며 지상과제이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통일을 구현하려면 평화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전쟁은 일시적 승리의 수단은 될지언정 영구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해월신사는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기계요, 도덕은 사람살리는 기계”(毒者 必傷於 毒仁干義戈 禮劒智戟 征出西酉則 丈夫當前無壯士)라고 하였다. 또 “한사람이 착해짐에 천하가 착해지고, 한사람이 화해짐에 따라 한 집안이 화해지고, 한 집안이 화해짐에 한 나라가 화해지고, 한 나라가 화해짐에 따라 천하가 화해진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나의 동포요 모든 물건이 나의 동포”라고 하는 人吾同胞物吾同胞라는 평화사상의 대원리를 갈파하였다.²³⁾

이렇게 민족종단인 천도교는 천도교의 이념구현이 곧 평화통일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 종단과 협력하여 민족자주정신 정립, 신인간 창조, 새도덕질서확립 등의 포덕교화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천도교의 政治思想的 특성과 역사를 인격교육의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오늘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고뇌하고 있다. 인간성회복에서부터 사상대립의 극복, 환경보전등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인류존망과 관련된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도가 천도교에 있으므로 천도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과 수도, 그리고 포덕교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인내천 진리가 이 땅에서 창명되었음을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 진정한 통일과 평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전의 노력을 다 해가야 하겠다.

23) “三敬”, 天道教經典, 上揭書, p.355.

<참고문헌>

- 노태구(1995). 천도교의 평화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서울평화교육센터편.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노태구(1995). 세계화를 위한 한국민족주의론: 동학사상과 관련하여. 서울: 백산서당.
- 林雲吉(1992). 修道와 人生. 서울: 천도교중앙출판부. 포덕 133년.
- 天道教經典(1992).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포덕 133년.
- 天道教百年略史(上卷)(1881). 서울: 天道教中央總部. 布德 122年.